

완도 해조류센터 '토요 싱싱 콘서트' 15일 개막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음악회·공연·문화 페스티벌
할인·무료 쿠폰, 1000원 전북 경매 등 풍성한 경품 이벤트



지내해 열린 완도 주말 싱싱장터 공연 모습.

완도군이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싱싱 콘서트'를 연다. 매주 토요일마다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공연 뿐 아니라 파격적 가격의 경품 이벤트, 해산물 할인 행사가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완도군은 오는 15일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장인 해조류센터 광장에서 '토요 싱싱 콘서트' 개막행사를 연다.

싱싱콘서트는 오는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진행되며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줄 다양한 공연, 청소년 문화페스티벌로 관광객들을 맞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7~8월에만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점에 주목,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완도를 적극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완도군은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선, 공연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

역 식당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싱싱쿠폰을 나눠준다. 쿠폰은 할인쿠폰, 1만 원 무료쿠폰, 공짜쿠폰 등 3종류가 있으며 인근 식당, 화센터, 전북판매업소 등 60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000원짜리 전북 경매도 매주 토요일 열린다. 경매로 관광객들은 1kg짜리 전복을 1000원부터 살 수 있고 1kg들이 전복 한 상자를 가져갈 수 있는 경품 이벤트도 매주 마련된다. 리조트 무료숙박권을 포함, 80만원 상당의 대박 쿠폰도 마련했다.

또한 나눔의 대안장터인 '장보고 웃장'이 함께 열려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완도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스퀘어 광주버스터미널과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싱싱쿠폰 무료교환권을 사전 배부하고 행사장에서 싱싱쿠폰으로 교환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총괄본부장



최경주재단, 완도군청, 완도군체육회 관계자들이 완도 화흥초교에 마련된 최경주 광장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완도군 제공)

완도 최경주재단 17일부터 골프 꿈나무 하계드림캠프

최경주재단(이사장 최경주)은 17일부터 나흘간 완도에서 '2017 하계드림캠프'를 연다.

최경주재단은 골프 꿈나무와 장학 꿈나무 등 재단 소속 장학생 80명과 완도를 찾아 꿈에 대한 열정과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신의 미래와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키는 나눔의 선순환 기회를 갖는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총괄본부장

이 행사는 완도군청, 완도대성병원, 완도군 지역 아동센터협의회 등의 협력으로 완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류의 장이자 지역사회 축제로 진행된다. 또 최경주 이사장이 벵카샷 훈련을 하고 장보고기념관, 완도타워 등을 방문하는 시간도 이어진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총괄본부장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완도군 상담창구 운영

완도군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한 상담창구를 오는 1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상담창구는 특허청 지정 지식재산 전문기관인 전남지식재산센터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추진되며, 완도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의 특허등록,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담은 무료. 정해진 일정에 맞춰 완도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지식재산 전문가와 현장에서 맞춤형 상담 형태로 진행된다. 또 목포상공회의소 산하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올 한해 추진하는 각종 지식재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지식재산권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가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전화(완도군 기획예산실 061-550-5031, 전남지식재산센터 061-242-8587)를 통해 확인·문의할 수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총괄본부장

주민들 양보로...완도 여서도 돌담 살아남았다

통행 불편·붕괴 위험 감수
문화유산 보존 합의
안길 정비사업 설계 보완



통행 불편 등으로 사라질 뻔한 완도 여서도 돌담.

허물어질 뻔했던 완도 여서도의 국보급 돌담길이 주민들의 통큰 결단으로 살아남게 됐다. 통행 불편을 감수하고 문화유산의 미래가치를 위해 보존을 선택한 것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주민 협의를 통해 여서도 돌담을 보존키로 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길이 350m, 너비 3m 규모의 마을 안길 정비사업의 설계를 보완하도록 완도군에 지시했다.

도는 8월 말까지 현존하는 돌담의 가치와 규모, 노후 위험 구간 등을 조사해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설계가 보완되면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도와 주민들은 여서도의 미래를 위해 돌담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배부를 현상으로 붕괴 위험한 돌담 구간은 정비할 방침이다. 공사에 앞서 전문가·전남도·완도군·주민이 참여한 공사건설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돌담길 대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바랐다. 구불구불한 돌담길 폭이 1.0~1.5m로 좁은 데다 구불구불해 통행하기 불편하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했기 때문이다.

80명인 주민의 80%는 노인층이어서 걷기조차 힘든 경관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2015년 도서개발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 결정됐다. 공사 구간에는 돌담길 220m도 포함됐다.

하지만 착공을 앞둔 지난해 5월 마을 안길에서 돌담길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명절 때 찾아온 귀성객과 전국에 있는 향우회가 가세했다. 도와 군은 훼손을 막기 위해 우회도로 개설, 케도차·곤돌라 설치, 생필품 수송인력 배치 등 대안을 내놓았다.

한 해 동안 고민하던 주민들은 지난해 말 마침내 돌담길을 보존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돌담길 중 위험한 구간 3~4곳을 다시 쌓고, 길바닥을 평평하게 깔라 집수레나 삼륜차가 다니도록 요구했다. 이 의견은 설계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신운용 전남도 설계발전장은 "여서도는 한국의 이스터섬으로 불릴 정도로 풍경이 좋은 국립공원이고, 돌담·참뚱을 잡으러 연간 4000~5000명이 찾는 낚시전국"이라며 "주민의 동의를 얻어 돌담길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강진군 10억 들여 참꼬막 자연 산란장 확대

강진군은 2019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참꼬막 자연 산란장을 확대한다. 군은 2014년부터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매해 3곳씩 모두 12곳에 크기 4cm 내외 참꼬막 모패(母卵)를 살포해왔다.

참꼬막 모패가 뿌려진 곳에서는 2년 간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칠랑면 봉황마을 주변 개펄에 참꼬막 자연 서식장이 만들어

졌고, 개체 수도 늘어났다. 대구면과 도암면 등에서도 참꼬막 채취량이 증가했다. 참꼬막은 단백질, 무기질, 칼슘, 비타민 함량이 많아 건강 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이 조개류 매개로 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칠랑면 봉황마을 주변 개펄에 참꼬막 자연 서식장이 만들어

진도향토문화회관 청소년 연극 '벚꽃엔딩' 공연

진도군은 14일까지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진도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 '벚꽃엔딩'을 공연한다. 연극 '벚꽃엔딩'은 흥대와 대학로, 인대밴드와 연극공연팀이 함께 협업한 '뮤직 드라마' 형태의 새로운 공연으로 신선한 감동과 웃음을 주는 로맨틱 코미디

형태를 띠고 있다. 연극은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이번 공연은 새로운 예술 장터를 경험하지 못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자극과 상상력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탄력 운영제' 호평

진도군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실 탄력 운영제'를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진도군 행정복지센터는 농번기철을 맞아 지난 6월부터 진도읍 오일장인 2일과 7일, 오전 8시부터 민원창구를 운영, 50여건의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른 아침 눈·발에 나가야 하는 농·어

민들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 각종 증명발급이 가능하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신안동 주상복합상가

전남대정문인근 (1층, 2간) 일반물건

건물 32평
매매가 3억5천
(용자 2억5천, 보증금 5천, 월 143만원)

【법원 경매/공매】

토지	공방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준공업지역 개발촉진지구 토지 523평 감평가 311,000,000 최저가 311,000,000	▶광산구 장덕동 허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 781평 건물 518평 감평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말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평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장성 서삼면 승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평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근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감평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나주 왕곡면 송추리 계획관리지역 분노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평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평가 58,000,000	▶나주 다시면 월태리 원동마을내 토지 754평 건물 325평 감평가 591,000,000 최저가 414,000,000

근린시설

-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풍암동성당인근
토지 102평 건물 223평 **감평가 984,000,000** 최저가 689,000,000
-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평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 ▶광산구 장덕동 허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 781평 건물 518평 **감평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 ▶장성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인근
토지 176평 건물 111평 **감평가 387,000,000** 최저가 271,000,000
-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3493평 건물 1734평 **감평가 49억** 최저가 14억

일반물건

-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 ▶서구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영업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 ▶서구 마름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능
-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휴관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